

영화의 상상력과 다문화 종교교육 - 영화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

안 신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요 약〉

본 논문은 예수영화들과 <젊음 없는 젊음>(2007)에 나타난 예수와 그리스도적 인물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다문화 종교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는 다문화 사회의 실체를 잘 반영한다. 종교 관련 영화를 종교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준 높은 다문화 종교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9년에 개봉된 <아바타>, <박쥐>, <불신지옥>, <2012> 등도 다양한 종교적 상상력을 이미지와 상징을 통하여 형상화하였다.

종교 관련 영화는 크게 종교영화와 종교적 영화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구체적인 종교전통들을 다루며, 후자는 개인적 종교나 탈전통적 종교를 상상력과 창조력의 힘을 동원하여 형상화한다. 종교가 인상적이지만 잠시 등장하는 종교 삽입 영화도 있고, 세속적인 주제에만 천착하는 비종교영화도 있다.

영화에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는 회피, 경계, 대화, 수용, 신적인 만남이 있는데, 예수영화들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미지는 작가별, 문화별, 주제별, 장르별로 매우 다양하게 묘사되어 왔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1912), <불관용>(1916), <왕 중 왕>(1927, 1959), <벤허>(1959), <위대한 이야기>(1965), <마태복음>(1966),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1973), <가스펠>(1973), <나사렛 예수>(1977), <예수>(1979),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1988), <에덴의 정원>(1999), <예수의 고난>(2004), <위대한 탄생>(2006), <성 마리아>(2007), <메시아>(2008)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젊음 없는 젊음>에서 동양사상을 통한 변형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적 인물의 사례를 발견한다.

결론적으로 종교 관련 영화는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1) 문서교육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의 시청각자료로서, (2) 다양한 종교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3)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영화세대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 종교교육의 활용방안과 모델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영화적 상상력, 종교영화, 다문화 종교교육, 예수영화, 미디어교육, 이미지, 〈젊음 없는 젊음〉

I. 서론: 영화를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의 가능성

다문화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불교교육, 기독교교육, 유교교육, 이슬람교육, 원불교교육, 무신론교육 등과는 차이가 있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과 문화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이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학계에서 영화를 통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지만 기록영화(다큐멘터리영화)와 인권영화 등으로 활용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¹⁾ 영화는 크게 극영화(서사영화), 기록영화, 전위영화(아방가르드영화), 만화영화(애니메이션)로 구분하는데,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다문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문명의 정신적 토대를 이루는 종교를 통하여 성스러움(聖)과 고매한 이상을 추구해 왔고, 현대 종합영상예술의 중핵을 이루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름다움(美)을 갈구해 왔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서로 상충된 가치라는 사실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도 양자가 절대 타자와 절대 가치를 공통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네덜란드의 종교학자 반 텔 레에우(Gerardus van der Leeuw)는 종교와 예술의 교차점을 강조하였다.²⁾ 교육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반 텔 레에우에 따르면, 종교는 수식적 차원에서 무한의 힘과 만나지만, 예술은 수평적 차원에서 경험된 무한의 힘을 활용하여 시공간에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영화는 종교학이나 종교교육학만큼이나 그 기원과 형성의 역사가 짧지만 인류문화의 창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사회의 영향력만큼이나 영화는 현대문화의 다종교 다문화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³⁾ 한국에 개봉된 영화들도 다양한 종교적 주제와 상징을 담고 있다.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박찬욱 감독의 〈박쥐〉(Thirst, 2009)는 뱀파이어가 된 신부(송강호 분)의 사랑과 고뇌를 다루고 있고, 이용주 감독의 〈불신지옥〉(2009)은 신들린 소녀를 둘러싼 인간의 광기와 치유의 욕망이 지닌 종교적 의미를 되묻고 있다. 전자가 기적에 대한 일부 천주교인들의

1) 구정화·박윤경·설규주,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이해』(서울: 동문사, 2009), 283-311쪽; 김연권·한용택, 『영화를 통한 다문화 교수학습』, 최충욱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양서원, 2009), 239-278쪽.

2) Gerardus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 윤이흠 역, 『종교와 예술』(서울: 열화당, 1988), pp.145-146.

3) 안 신,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영국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238쪽.

맹목적인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자는 개신교와 무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와 치유에 대한 극단적인 욕망의 측면을 다룬다. 지금까지 종교학은 다문화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종교의 신념과 의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공감적이며 객관적인 이해를 시도해 왔지만, 이 영화의 감독들은 종교의 ‘부정적’ 혹은 ‘숨겨진’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종교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인 욕망과 생명과 치유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영상 위에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종교심리학자이며 종교철학자 제임스(William James)는 제도 안의 종교가 아닌 제도 밖의 종교로서 ‘개인적 종교’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⁴⁾ 영화에는 기존의 종교문화전통에 버금가는 종교적 상징과 구조가 드러나는데, 영화의 기획과 제작 및 마케팅에서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부터 제작되어 온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이제 4탄까지 제작될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모아 왔는데, 맥지 감독의 〈터미네이터 구원〉(Terminator Salvation)에서 기계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마음의 힘’에 달려 있다는 동양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0월에 개봉한 트란 안 홍 감독의 〈나는 비와 함께 간다〉(I Come with the Rain, 2009)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신비적 치유의 체험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영상기술을 동원하여 인류의 종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에머리히 감독의 〈2012〉(2009)에는 마야 종교를 비롯하여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 공동체의 다양한 반응들을 교차시키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등장시켜 기존의 유대-기독교 전통의 종말론적 해석의 틀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영화의 상상력을 통하여 다문화 종교교육을 진작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의 삶을 주제로 한 ‘예수영화’(Jesus film)들을 주로 분석할 것이다. 다루어질 영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를 주요 주제로 조명하고 있는 ‘예수영화’들의 내용과 특징을 탐색하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삶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리스도적 인물(Christ figure)과 예수의 변용들에 대한 ‘종교적 영화’에도 주목할 것이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코폴라 감독의 〈젊음 없는 젊음〉(Youth without Youth, 2007)에 나타난 그리스도적 인물을 불교와 기독교의 창조적 결합의 한 사례로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는 기존의 영화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 종교교육을 위한 종교영화의 활용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할 것이다.

4)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서울: 한길사, 1999), pp.87-90.

Ⅱ. 종교 관련 영화의 구분: 중복과 차이

현대문화의 다양한 종교전통들을 이해하고 설명시킬 목적으로 영화매체를 사용할 때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점은 강의와 수업 시간에 사용될 영화의 장르와 주제에 대하여 연구자가 지닌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종교현상학에서 다른 종교를 편견 없이 이해하기 위하여 가치판단을 유보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에포케’라고 하는데, 영화를 이해할 때 그러한 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⁵⁾

종교 관련 영화의 구분	주요 주제와 소재	대표적 사례
1. 종교영화(religion film)	특정 종교와 종교인	다큐멘터리영화
2. 종교적 영화(religious film)	삶과 죽음의 의미	서사영화/극영화
3. 종교 삽입 영화(religion as cameo)	주변의 종교	전위영화
4. 비(非)종교영화(non-religious film)	세속적 비종교적 주제	오락영화/상업영화

위의 표와 같이 종교 관련 영화를 하나의 작업가설로서 분류해 보자. 종교적 상상력이 영화에 구현되는 유형은 먼저 크게 ① ‘종교영화’(religion film)와 ② ‘종교적 영화’(religious film)로 분류한다. 영화가 현실의 종교를 그대로 화면 위에 투사하고 영화는 단순히 실체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매체수단으로 파악하는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documentary, 기록영화)들이 대표적인 종교영화로 구분된다. 부처, 예수, 무함마드 등의 삶을 다루거나 불교, 기독교, 이슬람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에 현실의 종교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각본대로 촬영할 때에 감독의 상상력과 배우의 연기력에 의하여 의미가 변형되고 추가되어지는 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서사영화’(film drama, 극영화)를 ‘종교적 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유형에 명쾌히 대응시키기 힘든 예술적 성격이 강조되는 ‘전위영화’(avant garde film)에도 종교가 잠시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영화 안에서 특정종교 혹은 다종교가 ‘인상적인 단역배우’(cameo)처럼 잠시 스쳐지나가듯이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필자는 앞의 두 유형과 구별하여 ③ ‘종교 삽입 영화’(religion as cameo)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번역 가운데 실종〉(Lost in Translation, 2004)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인 남녀의 외로움과 문화적 충격을 그리고 있는데, 일본종교를 대표하는 신도와 불교가 잠시 등장한다. 이외에도 ‘종교영화’,

5) William R. Telford, “Through a Lens Darkly: Critical Approaches to Theology and Film”, In Eric Christianson, Peter Francis, and William Telford, eds. *Cinéma Divinité: Religion, Theology and the Bible in Film*(London: SCM Press, 2005), pp.26-34. 텔포드는 영화에 대한 종교학, 신학, 성서학의 접근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특히 종교학적 영화연구는 신학적, 신화적, 이념적 접근으로 나눈다. 여기서 신학적 접근이란 ‘신학적 교구주의’를, 신화적 접근은 ‘상징적 보편주의’를, 이념적 접근은 ‘사회과학적 환원주의’를 의미한다.

‘종교적 영화’, ‘종교 삽입 영화’로 분류할 수 없는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오락 및 상업영화를 ‘비(非)종교영화’(non-religious film)로 구분하였다.

‘종교영화’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특정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맺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원불교, 통일교 등이 명시적으로 영화의 주제, 소재, 인물, 배경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만든 영화나 특정종교를 훈육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교육용 영화도 이 유형에 속한다. 반면에 ‘종교적 영화’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특정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개념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의 생사관, 가치와 초월에 대한 사랑,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기록영화뿐만 아니라 극영화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실존적이며 철학적인 가치와 의미를 묻기도 하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실에 대한 진리추구를 다루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종교학자 스마트(Ninian Smart)처럼 민족주의나 공산주의를 광의의 종교로 인정한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룬 〈우리의 향기〉(2000)는 ‘종교적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 나아가 아내를 잃은 한 교수가 복을 연주함으로써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맥카시 감독의 〈방문객〉(The Visitor, 2007)도 종교적 영화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에 예수영화들을 비롯하여 젊은 종교개혁가 루터의 종교경험과 신학형성의 배경을 설명하는 틸(Eric Till) 감독의 〈루터〉(Luther, 2003)와 부처의 출가와 득도를 극적으로 그린 베르톨로치 감독의 〈작은 부처〉(Little Buddha, 1993)는 종교영화로 구분된다.

두 유형의 특징을 더 자세히 정리하면, 첫째 ‘종교영화’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도적 종교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영화이다. 주로 종교적 인간과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⁷⁾ 예를 들어, 종교적 창시자(부처, 모세, 예수, 무함마드, 최제우 등), 개혁자(루터, 칼빈, 간디 등), 성인(프란체스코, 김대건 등), 종교적 사건(전쟁, 선교, 포교, 박해, 순교 등), 종교전문가(무당, 스님, 신부, 수녀, 목사, 정녀 등) 등이 주소재로 등장한다. 반면에 ‘종교적 영화’는 제도적 종교전통과 관련이 없지만 영화 그 자체에 종교적 신념, 의례, 공동체의 차원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접근한다. 영화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영화 자체가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신론, 심지어 교회론 등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2009년 12월에 개봉한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Avatar)는 힌두교에서 비슈누(Vishnu)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6) Ninian Smart,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6), pp.13-14.

7)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서울: 범우사, 2007), 7-9쪽. 정종화는 종교영화를 크게 외국영화와 한국영화로 나누고, 다시 외국영화를 개신교와 천주교로, 한국영화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로 세분하여 소개한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영화들 가운데 〈작은 부처〉(Little Buddha)와 〈티베트에서의 7년〉(Seven Years in Tibet, 1993)과 같은 불교계통 영화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육화’한다는 개념에 착안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생물학적 존재를 창조하였다.⁸⁾ 미래의 우주에 있는 한 행성에 사는 토착부족 나비족은 거대한 영을 지닌 우주목(cosmic tree)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누리는 부족이다. 희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침략에 맞서 싸워 결국 자연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종교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교적 상상력이 사용되고 있지만 확인 가능한 제도종교들을 언급하는 대신에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차용하고 결합하여 가상의 우주에 새로운 종교를 만든 셈이다. 따라서 〈아바타〉는 전통적 종교들의 상상력을 담고 있는 ‘종교영화’라기보다는 ‘종교적 영화’로 간주될 수 있다.

내용 면에서 종교전통이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요소로 파편화된 상징의 형태로 가미되는 ‘종교 삽입 영화’의 경우에는 종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이다. 예를 들어 장훈 감독의 〈영화는 영화다〉(2008)에서 강패(소지섭 분)는 인사동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제거한 백사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불상으로 살해를 저지른다. 불살생의 불교적 진리가 이 장면에서 대립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를 악용하면 결국 ‘천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준다. 한편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2009)에서 날아오는 컨테이너를 기적적으로 피하는 오동춘(김인권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에게 구두를 사주기 위하여 관광을 포기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종교적 영화’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한다면 어떤 영화도 비종교적 영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관객이 영화관에서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 생각한다면 모든 영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종교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노그래피와 오락영화를 비종교적 영화의 사례로 들기도 하지만 존재론적 성(聖)과 생리적 성(性)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학문적 탐색도 진행되고 있다.⁹⁾

영화를 다문화 종교교육에 활용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다문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세계종교를 교육하는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기록영화에 기초한 종교영화의 분석을 넘어서 종교적 영화의 활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Geoffrey Parrinder, *Avatar and Incarnation: The Divine in Human Form in the World's Religions* (Oxford: Oneworld, 1970), p.19. 종교학자 파린더는 힌두교, 불교, 기독교에 나타나는 신이 세상에 육화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9) Geoffrey Parrinder, *Sexual Morality in the World's Religions*(Oxford: Oneworld, 1980), pp.28-31.

Ⅲ. 영화 속 예수의 다양성: 정통과 대안

이제 다문화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활용사례로서 예수영화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예수영화는 주로 기독교의 시각에서 제작되어 왔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전개되어 왔다. 기독교의 성서와 신학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미지는 작가와 감독이 지닌 시각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영화에서 다른 이미지들을 형성해 왔다. 예수에 대한 고착화된 이해가 아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예수영화의 발달사는 정통과 대안의 연속이었다. 예수영화를 분석하기 전에 종교인의 영화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신학자 존스톤(Robert Johnston)에 따르면 영화에 대한 신학적 혹은 종교학적 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첫째, 영화를 ‘악마의 도구’나 ‘신앙의 적’으로 간주하며 회피(avoidance)하는 경향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선택적으로 배척하며 보이콧을 하는 일부 종교공동체의 반응에서 발견된다. 임권택 감독의 〈비구니〉(1984)가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작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둘째,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보이는 경계(caution)의 태도이다. 이 입장은 영화를 감상하되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분별력을 강조한다. 특정한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영화에 접근함으로써 영화와 종교 사이에 일반적인 불균형과 괴리를 강조한다. 셋째, 영화를 영화 그 자체로 보려는 대화(dialogue)의 태도가 있다. 현실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에 집중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을 한다. 영화에 나타난 다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비평의 태도는 양방향의 대화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영화에 나타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적 인물’(Christ-figure)을 분석한다. 무성영화 〈잔다르크의 수난〉(The Passion of Joan of Arc, 1928)에서 남성 사제와 폭력적인 군인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고뇌하는 가운데 진리를 타협 없이 고백하며 죽음에 맞서는 성녀 잔다르크의 모습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예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넷째 영화가 제공하는 종교적 지혜와 통찰에 주목하는 수용(appropriation)의 태도가 있다. 영화에 나타나는 종교적 휴머니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더 큰 통찰력을 영화로부터 얻기를 기대한다. 이 입장에서는 영화가 오히려 종교적 계시의 원천이 된다. 전통적 의미의 종교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감상과 비평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폭 넓은 문제를 탐색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적 인물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암시적으로 예수의 가치를 반영하는 ‘예수의 변형들’(Jesus transfigurations)에도 주목한다. 다섯째 종교를 ‘신적인 만남’(divine encounter)의 자리로 보는 태도이다. 관객이 성례전으로서의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초월적 경험을 한

10) Robert K. Johnston,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서울: IVF, 2003), pp.53-55.

다. 예를 들어 김용화 감독의 코미디영화 〈미녀는 괴로워〉(2006)에서 성형수술을 한 한나(김아중 분)와 정신병원에 있는 한나의 부친(임현식 분)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돼”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의 영향 아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일종의 종교적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의 역사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의 생애는 어떻게 제작되고 조명되어 왔을까? 다양한 모습의 예수영화들은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타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 및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¹¹⁾ 학생들에게 다름의 미학을 수용하고 영성의 깊이를 더해 주며 해석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종교의 문화화와 토착화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서의 내용을 기초로 예수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해는 프랑스의 레아르 감독이 단편영화 〈수난〉(La Passion)을 제작한 1897년이다. 이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관점과 기술이 더해지면서 예수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무성영화시대에 최초의 의미 있는 예수영화는 올컷 감독의 〈구유에서 십자가까지〉(From the Manger to the Cross, 1912)로서, 현지촬영을 시도한 이 영화는 부활사건을 제외시키고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복음서에 기초하여 예수의 삶을 묘사하였다. 성서의 내용에 충실하였던 올컷의 영화와는 달리 그리피스 감독의 무성영화 〈불관용〉(Intolerance, 1916)은 미국과 프랑스 및 바빌론의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예수의 삶과 교차시키면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지닌 통시적 의미를 보여준다. 당시 미국사회에서 확산되던 금주법과 도덕운동 및 영화검열 등에 대한 감독의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예수가 성장한 장소를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위선자로 묘사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원래 제목이 〈불관용〉이 아닌 〈어머니와 율법〉(The Mother and the Law)이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유대인 단체 브나이 브리스(B'nai Brith)가 유대인에 의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다.¹²⁾

반면에 데밀 감독의 〈왕 중 왕〉(The King of Kings, 1927)은 무성영화들 가운데 가장 극찬을 받은 예수영화로서 제작과정에서 종교계의 조언을 받고 촬영장에서 예배를 장려하

11) W. Barnes Tatum, *Jesus at the Movie*, 승현민 외 역, 『예수 영화 100년』(서울: 백림, 2004), pp.24-39. 테이텀은 영화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공관적(harmony) 접근과 대안적(alternative) 접근을 소개한다. 전자는 사복음서에 기초하여 백과사전식으로 예수 이야기를 제작하는 전통이고, 후자는 복음서의 일부만을 선택하고 상당부분 상상력에 의존하는 전통이다. 나아가 영화 제작자와 관객 및 영화 평론가는 예수영화에 대하여 예술적,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종교학적) 차원에서 다각적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William R. Telford, “His Blood be upon us, and our children: The Treatment of Jews and Judaism in the Christ Film”, In Eric Christianson, Peter Francis, and William Telford, eds. *Cinéma Divinité: Religion, Theology and the Bible in Film*(London: SCM Press, 2005), pp.276-277.

는 등 영화를 통한 선교를 의도하였던 작품이다. 데밀은 예수의 탄생보다도 치유자로서 예수의 활동에 더 집중하였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과 그 자손이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 개인에게만 국한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32년 뒤에 비슷한 제목으로 제작된 브론스틴의 〈왕 중 왕〉(King of Kings, 1959)은 백부장 루시우스, 어머니 마리아, 제자 유다와 죄수 바라바의 역할을 더 확대하였다. 예수는 혁명가 바라바와 대조를 이루며 평화주의자로 등장하므로 예수와 관련된 무력충돌의 장면은 영화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예수의 삶을 직접적인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동시대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와일러 감독의 〈벤허〉(1959)이다.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A Tale of the Christ)로 붙여질 만큼 예수의 치유능력이 부각된 작품이다. 갈리선의 노예로 끌려가는 벤허에게 물을 건네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쓰러진 예수에게 물을 건네는 벤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병에 걸린 벤허의 모친과 누이가 치유함을 얻는 장면 등이 인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폭력적 인간으로서의 벤허가 평화의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벤허〉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예수영화들 가운데 하나이다. 11개의 아카데미상을 휩쓸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기존의 예수영화들과는 달리 예수 자체의 이야기보다는 그 의미를 살리는 대안적 영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다.

한편 스티븐스 감독의 〈위대한 이야기〉(The Greatest Story Ever Told, 1965)는 미국에서 촬영되었고 요한복음을 기초로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의 정체성이 강조되었다. 스웨덴 출신의 북유럽 예수는 고통을 감내하는 완고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듬해 파솔리니 감독의 〈마태복음〉(1966)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촬영되었고 교황 요한 23세에게 헌정되었다. 이전의 예수영화들이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과는 달리 한 개의 복음서를 원작으로 선택하여 제작함으로써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편집비평’의 영향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흑백필름으로 촬영되었고 종말론의 요소를 제거하고 현명한 스승과 예언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 종교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파솔리니는 1세기 유대지도자들과 20세기 이탈리아 가톨릭교회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제도교회의 잘못을 영화를 통하여 비판하였다. 〈마태복음〉의 이탈리아판은 1964년 가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연계하여 상영되었다.

1973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노래하고 춤을 추는 예수들이 영상 속에 등장하였다. 주이슨 감독의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와 그린 감독의 〈가스펠〉(Godspell)은 각각 록 오페라와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1960년대의 록음악과 청년문화를 반영하며 베트남전쟁과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사복음서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의 상상력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슈퍼스타〉는 이스라엘 사막을 배경으로 버스를 타고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되고 예수의 마지막 수난주간을 다룬다. 무덤과 부활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배우들이 버스에 다시 올

라타며 막을 내린다. 예수(테드 닐리 분)는 백인, 유다(칼 앤더슨 분)는 흑인, 막달라 마리아(요네 엘리만 분)는 동양인이 배역을 담당하고 있어 인종적 대비가 눈에 두드러진다. 기존의 예수영화들과는 달리 고뇌하는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예수의 인성이 더 강조된다. 이 영화는 대중매체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로서 예수를 “슈퍼스타”(Superstar)로 선언한다.

반면에 〈가스펠〉은 뉴욕 맨하탄을 배경으로 예수가 슈퍼맨 복장을 한 어릿광대로 등장하여 공생애를 보낸다. 십자가형 대신에 경찰에 체포되어 전기의자에서 예수는 처형된다. 아홉 명으로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 이후에 사회로 돌아감으로써 부활사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예수는 폐품처리장에서 활동하며 사회의 제도권에서 소외당한 이탈자 히피(Hippie)의 모습으로 활동한다. 성서의 내용보다는 영화가 제작된 시대의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예수영화이다.

제피렐리 감독의 〈나사렛 예수〉(Jesus of Nazareth, 1977)는 예수(로버트 파웰 분)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전의 예수영화들과 같이 공관복음서의 전통을 이어갔다. 영화는 모로코와 튀니지에서 촬영되었으며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의 내용도 사용되었다. 특히 유대교 회당의 모임, 유대교 결혼식, 예수의 할례, 유대교 성년식(바르 미츠바), 유대교 신앙고백(쉐마) 등이 자세하게 나온다. 메시아로서 자의식을 갖게 된 예수는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는 동안 계시가 실현되었다고 선포한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행동한 예수는 베드로에게 교권을 인정하고 반유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됨으로써 개봉 전부터 천주교인과 유대교인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지만 신학적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의 비판을 받았다.

복음주의 신학노선을 지향하는 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와 창세기프로젝트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헤이먼 감독은 누가복음을 토대로 〈예수〉(Jesus, 1979)라는 다큐멘터리영화를 만들었다.¹³⁾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가 유대인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빌라도 총독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유대교 제사장들이 음모를 한 것이지 유대인 전체의 책임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스콜세지 감독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1988)이 개봉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예수(윌렘 데포 분)의 연약한 모습과 가상적 결혼과 출산은 기독교인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기독교의 반대에 부딪혀 2002년이 되어서야 개봉되었다. 그러나 필리핀과 남아공 및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상영이 금지된 상태이다.

13) 대학생선교회는 영화 〈예수〉를 <http://www.jesusfilm.org/film-and-media/watch-the-film>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도 예수영화를 이용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하여 판매하고 있다. <http://kccc.org/?Code=D00600&type=html> (접근: 2009.12.12.)

성서에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수의 삶에 대한 영화도 제작되었다. 달라트리 감독의 〈에덴의 정원〉(Garden of Eden, 1999)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의 12세부터 30세까지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랍비였던 아버지 요셉이 사망하자 예수는 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며 구도의 생활을 하였다. 이후 그는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며 율법과 정결한 삶을 강조하던 에세네파의 콤란공동체에 머물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수의 고통이 유난히 강조된 영화가 등장하였다.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 김슨이 감독하고 제작한 〈예수의 고난〉(The Passion of the Christ)이 2004년 영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지나친 폭력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⁴⁾ 그러나 배우들이 아랍어와 라틴어 및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높이고 예수의 고난을 상세히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극찬한 기독교인들은 유럽에서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로 간주하며 영화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감상하고 묵상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종교를 주제로 한 영화는 영화관의 스크린에서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공동체적으로 공유하며 신앙의 깊이를 돈독히 하는 문화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슨의 〈예수의 고난〉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상영이 금지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무슬림들을 그토록 자극하였던 것일까?

2008년 이란의 탈레브자데 감독이 제작한 〈메시아〉(The Messiah)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입장의 예수이해와 차별화를 선언하며 이슬람의 독특한 예수관을 소개하고 있다. 꾸란과 이슬람 전통에 의지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알라의 은혜로 기적으로 승천하였고 대신에 예수를 제사장에게 판 유다가 예수의 모습과 목소리로 변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묘사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예수이해를 먼저 화면으로 보여준 후에 다시 그 내용을 이슬람의 관점에서 정정하는 형식으로 이슬람의 예수이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의 탄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마리아에 대한 영화들도 다종교 종교교육을 위하여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개봉된 하드워 감독의 〈위대한 탄생〉(The Nativity Story)은 최초의 여성 감독이 만든 예수 관련 영화로서 여성으로서 마리아의 고뇌와 갈등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2007년 이란에서 개봉된 바흐라니 감독의 〈성녀 마리아〉(Saint Mary)는 꾸란과 이슬람 전통에 기초하여 예언자 예수의 모친에 대한 이슬람의 이해를 형상화하였다. 성서에 등장하는 배우자 요셉은 등장하지 않으며 마리아 홀로 사막에서 대추

14) Paula Fredriksen, "Responsibility for Gibson's Passion of Christ", *The Responsive Community*, Winter 2004, pp.59-63; Amitai Etzioni, "Gibson's Odious Film", *The National Law Journal*, Feb. 2004, p.23.

나무 아래에서 예수를 출산하고 그녀를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등장한다. 아기 예수가 신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기적을 행하자 마리아를 비방하던 모든 이들은 놀라고 동방박사는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영화에서 예수의 이미지는 작가별로, 장르별로, 주제별로, 문화별로, 종교전통별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21세기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교육자는 경전, 의례, 공동체를 중심으로 종교적 세계관에 접근하고 그 지혜와 가르침을 교육하는 종래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1세기 전에 인류의 새로운 소통매체로 등장하여 이제 확고한 문화적 위치를 점유하게 된 영화가 지닌 다문화 종교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활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 종교교육의 사례와 모델: 〈젊음 없는 젊음〉에 나타난 동양적 예수

예수에 대한 기독교와 이슬람에 기초한 영화해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고 교육되어 왔지만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도교와 유교를 포함한 동양종교를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가 아닌 동양적 그리스도는 동양종교의 군자, 보살, 아바타, 신선의 이미지로 제시되기도 한다.

1970년대 〈대부〉 시리즈로 유명해진 코폴라 감독은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원작소설을 토대로 〈젊음 없는 젊음〉(Youth without Youth)을 제작하였다.¹⁵⁾ 200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이 작품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시간의 두 축으로 삼고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제 주인공 도미니크 마테이(팀 로스 분)에서 동양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마테이는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인류의 원초적 언어와 인간 의식의 기원을 탐색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처음부터 평범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꿈이었기에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어버린 마테이는 절망 가운데 자살을 결심한다. 그러나 부활절에 번개에 맞아 40대의 젊음을 되찾게 되고 놀라운 초능력을 얻는다. 하늘에서 떨어진 전기충격은 그를 슈퍼맨으로 만든다. 인간과 신 사이를 중재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매개하는 신적 존재와 동행하는 다시 거듭난 마테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며 자아발견의 여행을 떠난다. 무의식은 선과 악을 포괄한 전체성으로서 등

15) Mircea Eliade, *Youth without Youth*(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v-ix. 코폴라는 이 소설을 신비에 감싸인 사랑이야기로 규정한다. 그는 인간 존재가 직면한 시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자신의 영화라고 자평한다. 그는 시간과 내면적 의식에 대한 새로운 영화언어의 창출을 시도하였다.

장하지만 자기중심적 상태에 있는 마테이의 이기적 소아(小我)는 점차 타자 중심적 대아(大我)로 성숙한다.¹⁶⁾ 그러나 마테이의 능력을 과학과 전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히틀러, 오토 박사, 군인, 민족주의자, 과학자)이 그를 납치하려고 하자 그는 예수처럼 신분을 숨기며 중립국 스위스에서 살아간다. 예수가 메시아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지만 그의 능력이 노출되었듯이 마테이도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 그는 사랑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욕망으로 가득 찬 무의식과의 소통을 스스로 단절하고 자신의 젊음과 초능력을 버리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는다. 그의 죽음은 이제 원래 계획하였던 자기불만에 찬 우발적인 자살로 파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지닌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승화된다.

둘째, 마테이는 사랑을 자기희생으로 완성한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듯이 마테이도 세 여성의 인도를 받는다. 루마니아의 첫 애인 라우라, 스위스의 베로니카, 인도의 루피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물이다. 영화에서는 힌두교의 윤회사상을 토대로 이 여성들의 도래를 설명한다. 여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테이는 학문적 탐구의 무한성, 기원탐색의 실마리, 인간 삶의 허구성을 깨닫는다. 신적인 실재를 제외한 인간의 삶은 결국 모두 환상(illusion)이라는 힌두교의 마야(maya) 개념을 토대로 마테이는 인생무상의 진리를 체험한다. 기독교가 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듯이 마테이는 성탄절 즈음에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른다. 부활절에는 육체적 거둢남을 경험하였지만 성탄절에는 영적인 거둢남을 실현하며 구원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십자가 대신에 우산을 통하여 신적인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에 침투한다. 마테이와 베로니카는 모두 우산을 들고 가다고 예상치 못한 번개를 맞아 무의식의 신비경험을 한다. 톨 감독의 〈마틴 루터〉(Luther, 2003)에서 폭풍우의 경험을 통해 루터의 삶이 바뀌었듯이 마테이의 경우에도 회춘을 경험하고, 베로니카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신들림을 경험한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주제는 핀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2008)와 슈벤테케 감독의 〈시간 여행자의 아내〉(The Time Traveler's Wife, 2009)에도 등장하지만 계시적 사건과 윤회적 사건을 동시에 표현한 〈젊음 없는 젊음〉은 동서양의 시간관이 상호조화를 이룬다. 회상을 통하여 시간은 전후방향으로 진행되고 인류의 고통과 전쟁은 심화된다. 현실과 꿈의 경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경계가 통합된다.

〈젊음 없는 젊음〉은 이집트종교, 무속, 힌두교, 불교, 도교의 문화콘텐츠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종교영화이다. 무의식과의 대화를 통해 개성화에 성공하게 되는 인간의 진리탐구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의식이 무의식과의 조우에서 느끼게 되는 양가감정(공포감과 매혹감)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지닌 모호성을 시간의 문제로 집약하며 인간의 승리는 결국 자기희생이 이루어질

16) C. G. Jung,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서울: 숲, 2002), 13쪽.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영화를 다문화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¹⁷⁾

영화소개→ 영화감상→ 영화토론→ 영화비평

첫째, 영화소개는 학생들에게 영화의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을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영화감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영화 감상 중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점을 제공하는 도입부분이다. 처음부터 교수가 설명을 지나치게 하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줄거리와 이야기의 전환점을 언급하는 일은 삼간다. 도입부분이 길어질 경우, 학생들에게 특정한 세계관을 주입하거나 계몽하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15분이면 충분하다.

둘째, 영화감상은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을 보았을 경우, 대학 강의와 대학원 세미나의 특성상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기가 힘들며, 그렇다고 일주일 후에 토론을 하면 숙지된 내용을 잊게 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된다. 교수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편집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선택과 해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선입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영화토론은 학생들이 영화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부분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힘든지, 그리고 영상으로 독특하게 표현된 소재와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다. 전공분야가 다른 학생들, 종교가 다른 학생들, 남녀, 노소 등의 변수에 의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와 해석들이 나온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점이다. 학생들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간과한 영화의 종교적 측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기도 한다. 교수가 학생들을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몇몇 학생들이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때때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비평은 토론 후에 학생들 개개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연구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강의와 세미나에서 논의된 쟁점들이 논리적이며 유기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최종단계이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성찰을 돕기 위하여 최소한의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17) 필자는 서울대의 <현대문화와 기독교>, 서강대의 <종교의 이해>, 이화여대의 <기독교와 세계>, 장신대의 <기독교와 현대문화>, 성신여대의 <세계종교입문>, 연세대 대학원의 <이슬람과 기독교>, 한신대 대학원의 <종교와 영상문화>, 가톨릭대 대학원의 <종교심리학 세미나>에서 영화를 다문화 종교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영화분석 이론보다는 자신들의 종교관과 경험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영화감상에 일정한 틀, 예를 들어, 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에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V. 결론: 요약과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관련 영화의 유형들을 나누어 그 특징을 살려 보았고, 그 논의를 기초로 예수영화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영화에 표현된 예수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변화, 장르의 변화, 국가와 작가의 차이, 원작의 선택범위,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경전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가 전혀 다른 인물로 표현되어 왔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로서 코폴라 감독의 〈젊음 없는 젊음〉에 나타난 동양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 종교교육의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예수영화를 포함한 종교 관련 영화들은 다문화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다문화 종교교육과 관련된 강의와 세미나에서 영화를 시청각자료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서(경전이나 교재)에 기초한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대, 가톨릭대, 한신대 등에서도 영화를 통한 종교읽기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종합 영상예술로서 영화는 스마트(Ninian Smart)가 언급한 종교의 7가지 구성요소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인간의 욕망과 고뇌에 대한 불교의 세계관을 입체적이며 미학적으로 조명하였다.

둘째 종교 관련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틀로서 다양한 종교교육의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 〈젊음 없는 젊음〉의 경우 종교심리학과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세미나와 강의에서 칼 융의 심층심리학을 이해시키는 데 적합하다. 영화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엘리아데의 소설 원문에는 칼 융 연구소가 등장하고 무의식의 침범과 개성화의 과정으로 영화 전체의 흐름이 진행된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의 경우, 종교철학 강의나 세미나에서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종교영화를 분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1세기 종교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젠더와 다문화의 문제는 영상문화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18) 박태식, 『영화는 세상의 암호』 II(서울: 늘봄, 2008), 71-100쪽. 박태식은 종교학적 관점에서 영화평론을 해 온 학자로서, 현재 서강대와 가톨릭대에서 종교와 영화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0)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은 여성주인공 치히로와 소피의 세계관과 일본종교의 상상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마리아와 관련된 영화를 통해서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여성관이 지닌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포먼 감독의 〈고야의 유령〉(Goya's Ghosts, 2006)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갈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그리고 있고,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 토리노〉(Gran Torino, 2008)는 동양 이민문화에 직면한 서구와 기독교의 한계를 전달한다. 또한 〈박쥐〉와 알프레드슨 감독의 〈렛미인〉(Let the Right One In, 2008)을 비교한다면 비슷한 뱀파이어 영화이지만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문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것이다.

종교영화의 상업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009년 9월에 제 7회 서울기독교영화제가 문화선교연구원 주최로 서울극장에서 개최되었다.¹⁹⁾ 개막작으로 상영된 켄드릭 감독의 〈파이어프루프〉(Fireproof, 2008)는 서울기독교영화제의 롤 모델로 제시된 작품으로서 미국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소통문제를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극복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기독교의 시각이 지나치게 나타나 오히려 한국관객의 정서와 교감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개봉당시 박스오피스 4위의 상업적 성공을 선전하는 것은 영화에서 풍기는 자본주의로 포장된 미국기독교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국 기독교 단체들의 행사들에서도 우리는 쉽게 현대문화의 상업성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보통 종교영화는 특정 관객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상업적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벤허〉의 경우처럼 예외도 있겠지만,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종교영화를 넘어서 종교적 영화를 포함하여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영화의 상상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사용될 것이다. 스크린 위에 드러난 '타자'의 이미지는 결국 '자아'의 정체성을 반영한다.²⁰⁾ 예수를 그리는 영화의 다양성도 타자에 대한 획일적인 지식을 확보하기보다는 상황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따라 다른 인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영화를 단순히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종교 자체로 간주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3D 영화에 열광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21세기의 다문화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 제7회 서울기독교영화제가 서울극장에서 2009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있었다.

20) David Jasper, "Otherness and infinitum", In S. Brent Plate and David Jasper eds. *Imag(in)ing Otherness: Filmic Visions of Living Together*(Atlanta: Scholars Press, 1999), pp.213-217.

참고문헌

- 구정화 · 박윤경 · 설규주.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이해』. 서울: 동문사. 2009.
- 김연권 · 한용택. 「영화를 통한 다문화 교수학습」. 최충옥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9.
- 박태식. 『영화는 세상의 암호』 II. 서울: 늘봄. 2008.
- 안 신.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영국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 Eliade, Mircea. *Youth without Yout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Etzioni, Amitai. "Gibson's Odious Film", *The National Law Journal*, Feb. 2004.
- Fredriksen, Paula. "Responsibility for Gibson's Passion of Christ", *The Responsive Community*. Winter 2004.
-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서울: 한길사. 1999.
- Jasper, David. "Otherness and Infinitum", In S. Brent Plate and David Jasper eds. *Imag(in)ing Otherness: Filmic Visions of Living Together*. Atlanta: Scholars Press. 1999.
- Johnston, Robert K.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 서울: IVF. 2003.
- Jung, C. G.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서울: 솔. 2002.
- Parrinder, Geoffrey. *Sexual Morality in the World's Religions*. Oxford: Oneworld, 1980.
- _____. *Avatar and Incarnation: The Divine in Human Form in the World's Religions*. Oxford: Oneworld. 1970.
- Smart, Ninian.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6.
- Tarum, W. Barnes. *Jesus at the Movie*, 승현민 외 역. 『예수영화 100년』. 서울: 백림. 2004.
- Telford, William R. "Through a Lens Darkly: Critical Approaches to Theology and Film". In Eric Christianson, Peter Francis, and William Telford, eds. *Cinéma Divinité: Religion, Theology and the Bible in Film*. London: SCM Press. 2005.
- _____. "His Blood be upon us, and our children's: The Treatment of Jews and Judaism in the Christ Film", In Eric Christianson, Peter Francis, and William Telford, eds. *Cinéma Divinité: Religion, Theology and the Bible in Film*. London: SCM Press. 2005.
- Van der Leeuw, Gerardus.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 윤이흠 역. 『종교와 예술』. 서울: 열화당. 1988.

원고접수: 2010년 1월 17일 1차심사: 1월 28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소개: 안 신

- ① 전공: 종교학, 종교철학 / 소속: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심리학, 종교교육,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세계종교, 현대문화, 영화
 - ③ 주요논저: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그 한계」,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조나단 스미스의 종교현상학 연구」 등
 - ④ E-mail: shinahn@snu.ac.kr
-

Abstract

Filmic Creativity an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Image of Jesus in Films

Ahn, Shin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pedagogical value of film for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y analyzing various images of Jesus in films.

First, we classify the relation of religion and film into two types: religion film and religious film. Religion film deals with particular tradition of religion, especially its belief system, ritual, and community. On the contrary, religious film focus on film as religion. Films make their viewers feel content and happy in film theaters. They have their own doctrine of salvation and ethics. Sometime religions play a role of cameo in films. If they are no religion in film, we can call this film non-religious film.

Second, we examine different images of Jesus in films. Their transformations depend on the differences of director, genre, subject matter and culture. The author analyzes Jesus films such as 〈From the Manger to the Cross〉, 〈Intolerance〉, 〈The King of Kings〉, 〈King of Kings〉,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Jesus Christ Superstar〉, 〈Godspell〉, 〈Jesus of Nazareth〉, 〈Jesus〉,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Garden of Eden〉, 〈Jesus of Montreal〉, 〈Passion of Christ〉, 〈Nativity Story〉, 〈St. Mary〉, 〈Messiah〉. In 〈Youth without Youth〉, the image of Christ-figure is trans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Eastern religions.

In conclusion, the author points out the contribution of media education through films to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effective material for media education, introduction to various methods and understanding of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We should develop more concrete programs of media education by using films.

Key words : Filmic creativity, religion film,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Jesus film, media education, image, Youth without Youth